

“어머니의 사랑으로 손수 만든 견과류입니다”

삼천동 프란체 주민자치위
직접 만든 견과류 바 250여개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에 전달

삼천동 프란체 주민자치위원회(대표감사 주지중)는 직접 어머니의 손길로 만든 견과류 바 250여개를 14일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교장 오연호)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삼천동 프란체 주민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이 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외롭고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느끼게 하여 힘을 얻게 하고 싶었다.”며, “어머니 마음과 사랑의 손길로 견과류를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학생들이 힘을 내 생활을 잘 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사회에 잘 정착하고 기여하는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연호 송천정보통신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손수 만든 견과류 바를 나눠줘 온정을 느끼게 해준 삼천동 프란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그 온정으로 힘내 생활을 잘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삼천동 프란체 주민자치위원회는 직접 어머니의 손길로 만든 견과류 바 250여개를 14일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에 전달했다.



서부산림청, 진안 상전서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에서 직원, 영림단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산림청은 봄철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숲의 다양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나무 조림목에 대해 우수한 목재생산을 위한 가지치기 및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활동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천천면, 노일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교육 실시

장수군 천천면(면장 김진기)은 지난 13일 종합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후에는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청취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천천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공익활동이터공공시설봉사, 문화재시설봉사, 교육시설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총 89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악신동 김태연양, 정읍시청에 150만원 성금 기탁

국악신동 김태연 양(7)이 지난 12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150만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는 김양이 지난달 제29회 정읍문화재단 기탁 중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정읍시편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으로 시상한 상금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태연 양의 어머니 김애란씨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기탁 받은 성금은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기탁자의 소중한 뜻과 함께 전달하겠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을 해준 김태연 양과 어머니 김애란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악신동 김태연양은 지난달 20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 정읍시편에서 ‘배 띄어라’는 노래로 최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으며, KBS 국악 한마당 설날특집, SBS 세상에 이룬 일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또한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 유치부 정원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내년 4월에는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홀에서 공연이 예정되어있다. /정을=김대환 기자



‘투호 · 궁도 실력 뽐내다’ ... 진안군 어르신 한궁대회 성료

제4회 진안군 노인 한궁대회가 지난 13일 진안군 노인지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지회장 안한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노인회 관계자를 비롯한 200여 명의 지역 노인들이 참석했다.

한궁은 한국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를 결합시킨 스포츠로,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의 새로운 체육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계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 읍·면별 남녀 각 1개 팀씩 총 22개 팀이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치며 축제와 단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남자부 1위에 진안읍이 여자부 1위에 마령면이 차지하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안한수 지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기 넘치는 체육활동으로 즐거운 생활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노암주공마을, ‘셋거리 먹는 날! 행사’ 펼쳐

남원시 노암동은 지난 13일 오후 2시 노암주공아파트 102동 모퉁에서 주민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원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주최한 셋거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

마을 활동가들의 셋거리 만들기과 나눔 활동으로 마련된 부침개와 떡, 음료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며, 동네가수 라운섬씨의 트로트 공연이 함께 펼쳐져 셋거리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최근 노암동에서는 이웃에 안부 묻기, 내가 먼저 인사하기 등의 주제로 셋거리 나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황금숙 노암동장은 “셋거리란 ‘새참’의 전라도 방언이라며,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잘 알지 못할 만큼 삭막해지는 시대에 이웃끼리 모여 앉아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런 마을 행사가 마련된 것은 주민자치와 소통의 시대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전했다.

노암주공아파트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주민 대부분이 나 홀로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고독사 등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

국내 최대 리조트 중 하나인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18/2019 동계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14일 오후 설천베이스 에코리프트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임직원들과 무진장 소방서 대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수행능력을 배양해 빠르고 정확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스키 시즌 중 스키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가장 재난 상황을 설정, 톨라식과 장대식, 주마식 방법 등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방식으로 훈련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자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경찰-익산우체국, 시민안전 업무협약 체결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와 익산우체국(국장 이용준)이 14일 익산경찰서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주 익산경찰서장과 각 과장 그리고 이용준 익산우체국장과 물류과장·집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경찰 사책의 홍보,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협조 등 향후 양 기관 간의 업무에 관한 협조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차안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호 공조를 약속했다.

특히, 익산경찰이 추진 중인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포스터를 40여대의 우체국택배 차량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고,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시행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남원경찰 중앙지구대, 교통사고 제로화 반사 스티커 부착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이동근)는 지난 13일 관내 이륜차·전동휠체어·농기계 등 추돌사고 취약 차량을 대상으로 반사 스티커 부착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추돌사고가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농기계·경운기 등이 대상이었으며, 야간주행 시 위험하지 않도록 빛 반사 스티커를 부착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안전모를 증정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수능 전 · 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수능능력시험 전·후 청소년 선도와 비행 예방을 위해 관내 유해업소 대상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활동은 무주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과 군청, 청소년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설명과 안내문 배부로 진행 되었다.

무주경찰은, 지난 6일 설천면 소재지 유해업소 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안성면 일원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수능이 끝난 후에도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